



성당 건축헌금을 약속한 후 냉담을 하고, 이사를 해서 본당도 바뀌고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주님의 것을 떼어 먹은 느낌 탓에 찻찻해서 마음을 짐을 털고 싶습니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2코린 8,11-12)라는 말씀처럼 헌금은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원하시는 그분께 바치는 감사의 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헌금 약속 액수를 ‘채무’로 기록하는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약속한 만큼은 꼭 받아내야만 속이 풀리는 채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긴 냉담을 풀고 돌아온 사실만으로 하느님께서 지난 잘못을 모두 잊으셨습니다. 오직 다시 돌아온 자매님의 결단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주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아픈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모두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난 일에 마음이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것을 떼어 먹은’ 것 같다면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시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유익한 방법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돌아와’ 그분께 기쁨이 되신 만큼 다시는 ‘도망’치지 않는 그분의 든든한 자녀로 자리매김하여 성장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의 짐을 벗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젊은 시절의 아내 |

(잠언 5,15-23)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5장 “참사랑”
1, 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 5,15 네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16 네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 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
서야 되겠느냐?
17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 네 곁에 있는 낯선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 18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19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20 그런데 내 아들이, 너는 어찌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낯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
21 사람의 길은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신다.
22 악인은 제 악행에 붙잡히고 제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
23 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길을 잃게 된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나의 배우자가 미워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나의 배우자 때문에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혼인의 마지막 조건이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성적(性的)인 일치는 두 사람의 심리적·영성적 일치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한 몸 공동체를 형성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적 사건을 가리킨다. 이 한 몸 사건은 예수께서 밀떡의 형체가 되어 우리 것이 되어버린 성체 사건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를 위해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처럼”(에페 5,25) 부부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넘겨주는 거룩한 투신을 하여야 한다.

한 몸 공동체는 부부가 여러 해 같이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노력하면서 혼인성사의 신비를 살아가려 애쓸 때 이루어진다.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는 마치 오누이처럼 느껴진다. 그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은 서로 닮은 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외모

까지 닮아 가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부부가 한 몸 공동체로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부가 외형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세계도 닮았다는 얘기다. 부부의 얼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일치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표지다.

〈송봉모, 『관계 속의 인간』, 50-51쪽 요약〉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00장 ‘주님과 나는’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

-남지선교본당 6-2반 총무 이정자(사비나)-

낙동강 곁에 자리한 남지는 지금과 같이 제방이 높게 쌓여 있지 않았던 시절, 홍수가 들면 침수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살지 못하는 이곳에 조선말 박해를 피해 온 피난 교우들이 터를 잡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954년 남지공소가 설립된 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7년 남지본당으로 승격되어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며 힘써오던 중 지난 2000년 시골 지역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창녕본당 소속이던 부곡공소, 영산공소와 함께 남지선교본당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세 개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지에 9개의 소공동체가 있으며, 영산과 부곡에도 각각 2개의 소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이 모여 한 가족이 된 6-2반 소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루시아 반장님 내외분과 강원도에 집을 두고 남지에서 터전을 잡으신 마티아 연령회장님, 미국에서의 30년 생활을 접으시고 귀국하여 남지본당의 따뜻함이 좋아 오신 분, 마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부모님이 남지에 계셔서 오시는 분, 과수원을 하시는 분 등 11세대 17분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보듬으며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교중미사 후 성당 회합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임 안에서 깊은 신앙의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모임 후에는 점심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이루고 화합을 도모합니다.

아직까지 본당의 모든 일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회 회장님의 지휘 아래 부활절에는 성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길 14처를 모두 깨끗이 닦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고, 성모성월에는 본당 마당에 계신 두 분 성모님의 얼굴과 옷자락을 깨끗이 씻어 성모님의 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당 정원에 꽃

들을 심고, 잡초 뽑는 등 반원들이 한 가족이 되어 본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마르코 12, 28-31)”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길을 따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